

# 전남대병원, 3년 연속 '최고의 지방국립대병원'

### 美 뉴스위크·독일 기관 조사... '한국 최고의 병원' 14위 서울대병원 이어 국립대병원 2위... 국제 경쟁력 재확인

전남대병원이 3년 연속 전국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에 이어 2위이자, 지방국립대병원 가운데에서는 최고의 병원으로 평가받았다.

7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세계적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월드 베스트 호스피탈(World's Best Hospitals) 2021'에서 3년 연속 국내 10위권을 유지하며, 지방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

뉴스위크지는 독일의 유명한 글로벌시장조사 및 소비자 데이터 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와 공동으로 실시한 '월드 베스트 호스피탈' 평가조사

에서 전남대병원이 84.53%를 획득해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1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뉴스위크지의 첫 평가가 시행된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 전국 국립대병원 2위와 함께 지방국립대병원 1위의 평가를 받았다.

뉴스위크와 스타티스타는 이번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순위 선정을 위해 병원 근무자들의 추천, 환자들의 경험, 의료관련 지표의 세 가지 데이터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원 근무자들 추천의 경우

7만 4000명 이상의 현직 의사와 병원 당직자 및 건강센터 전문가들이 포함된 온라인 국제 설문조사를 반영했으며, 환자들의 경험은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 측정조사 그리고 의료관련 지표들은 환자 안전 및 위생 상태 측정과 치료의 질적수준 측정 등을 토대로 했다.

이번 평가결과 1위는 97.62%의 서울아산병원이 차지했으며, 2위 서울대병원(95.65%), 3위 삼성서울병원(92.73%), 4위 세브란스병원(91.54%), 5위 분당서울대병원(88.86%)이었다.

1~5위 병원은 2위와 3위의 순서가 바뀐 것을 제외하곤 동일하다. 이어 6위 서울성모병원(88.00%), 7위 고대안암병원(86.35%), 8위 아주대병원(85.64%), 9위 경희대병원(85.55%) 10위 강남세브란스병원(85.53%), 11위 중앙대병원

(85.21%), 12위 강북삼성병원(85.15%), 13위 여의도성모병원(84.90%) 등의 순이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세계적 언론매체와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은 전남대병원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최고수준의 상급종합병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그 명성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의료·연구·교육·공공의료 등 국립대병원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안 병원장은 또 "메르스 사태시에도 전남대병원이 감염병 종식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이번 코로나19도 사라질 때까지 지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광주시 28일까지

광주시는 "8일부터 28일까지 자치구·경찰청과 합동으로 지역 내 전체 공중화장실 282곳에 대해 비상벨 전수조사, 불법촬영 카메라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노후되거나 유동인구가 많고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비상벨 고장으로 인한 치안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벨 마·오작동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광주시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상황실로 신고돼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안심비상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합동 점검단은 또 최근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공중화장실 내 성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탐지기 및 랜즈탐지기 장비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도 점검한다.

광주시는 불법 촬영기기 발견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불법 촬영 및 인터넷 유포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송진남 광주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중 화장실 불법 카메라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기차 화재 막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 전남대 박찬진 교수팀

전남대학교 연구진이 전기차의 화재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

전남대 박찬진(신소재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부품이면서도 낮은 이온전도도, 전극과의 접촉 불안정, 기계적 성질의 문제 등 고체 전해질의 약점을 해결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전고체 배터리는 구성 재료가 모두 고체 물질이어서, 화학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특히 화재에 안전하면서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성능까지 우수해 현재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외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나, 핵심부품인 고체 전해질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해 온 것을 전남대 연구팀이 해결한 것이다.

지금까지 전기차 등에 주로 사용돼 온 리튬이온 배터리는 유기계 액체 전해질이 사용됐으나, 불에 잘 타는 성질 때문에 배터리 화재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 연구결과는 엘스비어에서 발간하는 최상위 학술지인 '에너지 스토리지 머티리얼스' (Energy Storage Materials, 피인용 지수 16.280)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SS기술개발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박찬진 교수는 "복합 고체전해질이 적용된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발생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전기차의 보급 확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ESS, 모바일,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천년고찰인 정읍 내장사 대웅전이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께 방화로 불이나 잿더미로 변했다.

<정읍소방 제공>

## "다른 스님이 서운하게 해서..." 스님 방화로 내장사 대웅전 전소

### 2015년 복원 뒤 또다시 불타

단풍 명소이자 천년사찰인 정읍 내장사 대웅전이 방화로 전소됐다.

지난 5일 오후 6시30분께 정읍 내장사의 대웅전(165㎡)이 방화로 소방서 추산 17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시간 20여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불은 다른 건물로 옮겨붙지 않아 추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는 없었다.

7일 정읍경찰은 내장사 승려 A(53)씨를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3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대웅전에 불을 질렀다'고 신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석달 전 내장사에 수행승으로 들어와 생활해오던 과정에서 함께 지내던 다른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방화 이유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불교조계종 대우 스님(75)은 7일 "내장사 대웅전 방화와 관련, 일각에서 떠도는 이야기와 다르게 사찰 내 불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내장사 대웅전은 지난 2012년 10월에도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나 소실됐다가 2015년 복원된 뒤, 다시 방화로 전소됐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새뜰마을 사업' 선정 광주 동구 주거환경 개선 등

노후주택과 좁은 골목으로 생활하기 불편했던 광주시 동구 계림동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재탄생한다.

7일 동구에 따르면 계림동 649번지 일원(3만4899㎡)이 대통령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이하 '새뜰마을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지난 2019년 지산동 동계마을에 이어 두번째이다.

새뜰마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시작해 달동네 등 취약한 주거지역 정비를 위해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계림동은 그동안 높은 노후불량주택율과 부족한 기반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고 있어 정비의 시급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동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 ▲휴먼케어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이 살기 좋은 새로운 동네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춘마을공작소와 협동조합 조직화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푸른어울림센터 조성, 푸른개미 파크렛 골목재생 등으로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도 지원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